

2023년 08월 20일 일요일 - 연중 제20주일

제1독서

<나는 이방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리라.>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6,1.6-7

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6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을 따르는 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7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의 이라 불리리라.”

주님의 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습니다.>

▮ 산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1,13-15.29-32

형제 여러분, 13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민족들의 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4 그것은 내가 내 살붙이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15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9 하느님의 은사와 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0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31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를 입게 될 것입니다. 32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입니다.

15,21-28

그때에 예수님께서 21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22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23 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24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25 그러나 그 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26 예수님께서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8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이 나았다.

주님의 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023년 09월 10일 일요일

[녹] 연중 제23주일

제1독서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3,7-9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7 “너 사람의 아들이여,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8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네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하는 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은 너에게 묻겠다.
9 그러나 네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3,8-10

사도 바오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8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한 것입니다.
9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의 다른 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10 사랑은 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15-2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5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를 얻은 것이다.

16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로 확정 지어야 하기’때문이다.

17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에서도 풀릴 것이다.

19 내가 또 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 사람이나 세 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023년 10월 01일 일요일

제1독서

<악인이라도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면,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8,25-28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25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 보아라. 내 길이 하지 않다는 말이나?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26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때문에 죽는 것이다.

27 그러나 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을 살릴 것이다.

28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2,1-11

형제 여러분, 1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2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3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으로 서로 낮을 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4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의 도 돌보아 주십시오.

5 그리스도 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하십시오.

6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8 당신 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10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11 예수 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맏아들은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입니다.

21,28-32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8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29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을 바꾸어 하러 갔다.

30 아버지는 또 다른 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31 이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입니다.” 하고 하자, 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32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 연중 제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제1독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들리라.>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1-5

1 아모츠의 아들 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2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3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에서 주님의 이 나오기 때문이다.

4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5 야곱 집안아, 자, 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0,9-18

형제 여러분, 이 9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 곧 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으로 하여 을 얻습니다.

11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12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13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4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15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16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18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16-20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1독서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법으로 많은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14ㄴ-2,2ㄴ.8-10

14 정녕 나는 위대한 임금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민족들은 나의 이름을 경외한다.

2,1 자 이제, 사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계명이다.

2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명심하여 내 []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 []의 주님께서 []하신다. —

8 그러나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으로 많은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너희는 레위의 계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9 그러므로 나도 []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길을 지키지 않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10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시냐?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서로 배신하며 우리 조상들의 []을 더럽히는가?

주님의 []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우리는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2,7ㄴ-9.13

[] 여러분, 7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8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9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13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그들은 말만 하고 하지는 않는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입니다.

23,1-12

1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하셨다.

2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3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4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5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6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를 좋아하고, 7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8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9 또 이 세상 누구도 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10 그리고 너희는 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뿐이시다.

11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2 누구든지 을 높이는 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023년 11월 26일 일요일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제1독서

<너희 나의 양 떼야. 나 이제 양과 양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4,11-12.15-17

11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 떼를 찾아서 보살피 주겠다.

12 자기 이 흩어진 양 떼 가운데에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 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 떼를 구해 내겠다.

15 내가 몸소 내 양 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의 말이다.

16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 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 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떼를 먹이겠다.

17 너희 나의 양 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이의 를 가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20-26.28

형제 여러분, 20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21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23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24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입니다.

25 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26 마지막으로 되어야 하는 는 죽음입니다.

28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가를 것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31-4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1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32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33 그렇게 하여 □□들은 자기 □□□□에, □□□□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34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35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
36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37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38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듯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39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40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41 그때에 임금은 □□□□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42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43 내가 □□□□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44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종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45 그때에 □□□□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로 너희에게 □□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46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일요일 -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제1독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아라.>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0,1-5.9-11

위로하여라, 하여라, 나의 백성을. —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2 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젖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3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4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5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9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10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11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어미 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베드로 2서의 말씀입니다.

3,8-14

8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이 같습니다.

9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10 그러나 주님의 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들은 불에 타 스러지며, 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11 이렇게 모든 것이 스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12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은 불길에 싸여 스러지고 원소들은 에 타 녹아 버릴 것입니다. 13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너희는 의 을 곧게 내어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의 시작입니다.

1,1-8

1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

2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3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를 선포하였다. 5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6 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7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1독서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이사야서의 □□□□입니다.

52,7-10

7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8 들어 보아라.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9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을 구원하셨다.

10 □□□□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을 보리라.

□□□□의 말씀입니다.

◎ □□□□□, 감사합니다.

제2독서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1-6

1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이 마지막 때에는 □□□□□□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3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4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5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6 또 만아드님을 저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이 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18

1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2 그분께서는 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3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은 사람들의 이었다.

5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6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었다.

7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8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9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10 그분께서 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1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13 이들은 혈통이나 육육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을 보았다.

15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16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17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18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와

가장 가까우신 , 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